

박 영 숙 (여성재단 이사장)

여성환경운동의 대모인 박영숙 이사장은 YWCA부터 시작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13대 국회의원 등을 두루 거쳐, 유엔환경개발회의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이후 여성재단의 전신인 '한국여성기금'을 맡아 오늘날까지 여성운동의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을 대선배로서 개척해 왔다.

오랜 여성운동을 통해, 4,000여 개의 크고작은 여성단체들의 고질적인 어려움인 열악한 재정의 극복임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이를 위해 '여성재단'을 구상하여, 이후 아름다운재단이나 환경재단과 같이 우리 사회에 기업이 아닌 순수 민간 차원에서 공익재단들이 설립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여성재단이 뿌린 기부문화의 풍토는 우리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여성재단을 통해 박이사장은 7년간 수시로 기부문화 국제 워크숍을 여는 한편, 정신대 할머니들의 일본군성노예국제법정 참가 경비, 저소득 모자가정, 실직 여성 재취업 교육, 성매매 피해 여성, 저소득층 여성 의료비, 여성 노숙자 쉼터, 불임 여성, 그리고 17대 총선 여성 후보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도왔다.

2004년 발족된 '미래포럼'(상임대표 남승우 풀무원 대표이사)에서는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에 참신한 화두를 던졌다. 여성문제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새로운 '사각지대'를 늘 찾아다니면서 관심을 쏟고있고 포럼을 통해 '환경친화 경영'이라는 새로운 경영방법을 제시하여 여성가족부가 정책으로 채택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박 이사장은 언제나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더욱 더 생기 있게, 지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여성 활동가들의 복지문제와 재충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여성운동의 큰 언니이자 대모이다.